

9.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진화하는 슈퍼마켓

파리지사

주요내용

▶ 슈퍼마켓 안의 '실내농장'

- 독일 슈퍼마켓 체인 Metro는 실내농장 스타트업 기업인 INFARM과 협력하여 베를린의 한 슈퍼마켓 안에 수경재배를 기반으로 한 실내농장 “the Kräutergarten”(독일어로 채소밭을 의미)을 선보였다.
- 이 작은 실내농장은 수직으로 쌓인 유리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자라며 LED조명이 태양을 대신하고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 재배되며 마이크로 센서와 데이터 수집으로 식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자동적으로 조절한다.
- 이 슈퍼마켓에서는 실내농장에서 두 종류의 바질을 생산, 수확하여 한달에 400팩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



I The Kräutergarten (사진출처: Merav Maroody) I

▶ 손만 닿아도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'미래형 슈퍼마켓'

- Coop Italia가 선보이는 “Il supermercato del futuro(미래의 슈퍼마켓)”은 기존의 원산지 및 성분 라벨링을 통한 정보전달에서 진화하여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의 원산지, 구성성분 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슈퍼마켓이다.
- 2015년 밀라노 국제박람회에서 선보인 이 미래형 슈퍼마켓은 2016년 12월 6일, 밀라노의 쇼핑몰 Bicocca Village에 The Futur Food District란 이름으로 1,000㎡ 면적으로 문을 열었다.
- 이 슈퍼마켓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대 위에 상품에 손을 대면 3차원 스캐너가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해당 상품의 정보를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.
- 단순한 원산지나 성분표시가 아닌 브랜드 가치, 특별할인, 요리방법, SNS 정보, 프로모션 정보 등도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.
- 이 시스템은 휴대폰, 고글 등 다른 장비를 요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.

- 또한 여기서 소비자가 더 알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, 소비자가 관심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슈퍼마켓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기 때문에 전략적 홍보 및 조사도 가능하다.



I Coop Italia (사진출처 : IBTimes UK Youtube) I

※ 출처

- LSA Commerce&Consommation 「Coop ouvre le "supermercato del futuro" à Milan」
- JLL real views 「How data and sustainability will shape supermarkets of the future」
- ubergizmo 「Coop Italia ouvre un magasin reposant sur la réalité augmentée」
- IBTimes UK 「Expo Milano 2015: Inside the supermarket of the future」
- accenture 「COOP ITALIA : TRANSFORMER L'EXPÉRIENCE CLIENT」
- treehugger 「This Berlin supermarket has a vertical micro-farm inside it」
- Mashable 「This Berlin supermarket just installed a farm inside its store」
- QUARTZ 「A startup that wants to end world hunger is starting with a tiny indoor vertical farm」

시사점

- The Nielsen Global Health and Ingredient-Sentiment Survey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66%는 인공첨가물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, 또한 71%는 그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.
- 기존 슈퍼마켓에서 단순히 가격, 성분라벨을 통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면, 앞으로의 슈퍼마켓에서는 발전된 IT,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판매하기도 하고, 능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.